



5면

경북구, 전주 전통한지로 새 옷 입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음 8월 26일) 제310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도 조찬 간담회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승구 기초실장, 김수홍 의원,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 의원, 신영대 의원, 김윤덕 의원)

전북장애인체전 개최 '눈앞'

도·남원시 등 대회 준비 만전... 시상품은 '쌀'
쌀값 폭락 따른 농촌지역 어려움 함께 나누고자

‘2022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개최지인 남원시를 비롯해 전북도, 전북장애인체육회, 참가 시·군, 종목별 경기단체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4개 시·군에서 2,000여 명이 참여, 역대 최대규모다. 남원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신규 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실내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건립하고, 기존 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개·보수를 하는 등 장애인 선수들의 이동거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북장애인체육회에서는

최근 쌀값 폭락에 따른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실천으로 모든종목 시상품을 쌀로 구입해 전달 할 계획이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3년간 도내 장애인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많이 위축됐으나 이제는 모두 체육현장에 나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한다”며 “이번 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지역내 장애인스포츠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림 체육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에 한 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도내 국회의원들과 국비 확보 '총력'

김관영 도지사, 전북지역 의원들과 조찬간담회

내년 예산 확보 · 전북특별자치도에 '공감대'
쌀값 하락 따른 수급 안정화 위한 대책도 논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주재하며 “국회 최종 의결 때까지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조찬 모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병도 위원장을 비롯해 여의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주된 주제 역시 여야 국회의원 협치와 소통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 및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이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전북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전하고 국회단체 추가 증액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지만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탄탄한 공조로 전년 대비 정부예산안 반영을 증가시켰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인만큼 지역 및 소속 상임위 중점확보 대상사업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중점확보 사업 중심으로 지역·연고 국회의원별로 사업을 분담하여 도시군과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수시로 협의를 거쳐 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이어 국가예산과 더불어 당면 현안인 전북특별

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등을 이번 국회에 통과하기 위해 당의 힘을 결집시키겠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된 바 있다”며, “더 나아가, 민주당 당론(중점과제, 관습법안) 채택 등의 보다 확실한 장치”를 위해, 참석 의원들에게 민주당내 지도부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공공의대 사안 해결을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며 “최소한 성과를 통해서라도 도민들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김관영 지사 취임이후 여야협치 시대 안 해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국회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결위 소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현재 쌀 시장에서는 45년만에 폭락이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37만톤 시장 격리를 진행했음에도 현재 43만톤의 재고와 신곡 출하를 앞두고 있어 쌀값 하락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8개 광역 도지사 공동으로 ‘쌀값안정 대책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100만톤 추가 시장격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농민수산물전금 지원 개선, 논타작물 지원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도 추가 시장 격리와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방식 개선을 건의했다”며 “쌀값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기 모이신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 준비비로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예산 확보는 국회의 협력이 절대적인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도, 디지털트윈 기반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도농, 농디 플랫폼에서 함께’

전국 최초로 추진... LX 등 관련기관과 회의 개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고품화, 과소화 등으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농촌유휴시설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 농디 구축 사업과 관련 13개 시군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관련 기관회의를 20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디는 장거리 연애를 뜻하는 룬디에서 착안한 말로, 도시와 농촌이 이제 더 이상 장거리 교류가 아닌 농디 플랫폼에서 가까워지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디지털트윈 기반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 농디 구축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돼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에 추진되는 디지털트윈 기반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 농디 구축 사업은 기존에 농촌유휴시설 개발을 위해 제공되었던 사진 또는 위성도 등 제한적 정보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유휴시설의 실내·외 공간 구성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차별성이 매우 우수하

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대규모 농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해 사전 중점성 검토, 사후 개발 운영·관리 등의 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농촌개발사업 관계자는 “그 동안 농촌유휴시설 활성화 및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적 활성화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하고 현장에 적용할 기술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더욱이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통합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어 매우 기대되며, 현장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디지털트윈 기반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 농디 구축 사업의 기술적 부분을 설명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향후에도 전북도와 디지털트윈 활용 분야에 적극 협조해 농촌재생, 농촌관광, 도농교류, 민진 관리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축성 569주년
역사는 미래다.

제 49회 고택

모양성제

2022. 9.30(금) ~ 10.4(화) 모양성 (고창읍성)

주최·주관 : (사)고창모양성보존회

후원: 대한민국정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부민회, 수업, 산림조합, NH농협 고창군지부, 고창군 지역농협, 전북은행, 웰파크시티, 한수원지하발전기사업부,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고창종합병원